

## 반쇼인 절과 소 가문 묘소

반쇼인 절은 13세기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쓰시마의 영주였던 소 씨 일족의 보리사입니다. 이즈하라 마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시미즈 산 그늘에 있는 이 사찰에는 1615년 이후 소 가문의 묘가 있는 광활한 영묘가 있습니다. 소 요시나리(1604~1657)가 부친 요시토시(1568~1615)를 추모하기 위해 요시토시의 법호를 따서 반쇼인 절이라는 이름으로 17세기 전반에 창건했습니다. 사찰에 인접한 가네이시 성은 소 씨 일족의 본거지이자 그들이 주로 거주한 성이었습니다.

반쇼인 절에는 붉은 산문 옆을 통해 들어갑니다. 문 안에는 액을 막고 사찰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숭배받는 인왕상 2기가 서 있습니다. 다른 건물은 화재로 소실된 이후 재건된 것이며, 산문은 경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원래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경내에 들어서면 본당이 있으며, 그곳에는 거북 학형 촛대, 사자 향로, 화병 등 3가지의 청동 제구가 있습니다. 이 제구들은 소 씨 일족 당주의 사망에 대한 조의 표시로 조선 국왕이 보낸 것입니다. 조선 왕조는 에도 시대(1603~1867) 내내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 사이의 외교를 담당하고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했던 소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쇼인 절은 한때 이러한 도구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용으로 녹여서 사용되었습니다.

본당에서 132단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소 가문의 영묘로 이어집니다. 최상부의 가미오타마야에는 거대한 삼나무 3그루가 우뚝 솟아 있으며, 영주의 묘와 그의 부인, 장성한 자녀들의 묘가 있습니다. 묘의 규모는 쓰시마번이 융성했던 시기와 부유했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 무역으로 번창한 17세기 후반 쓰시마의 번영을 반영해 요시나리의 묘와 그의 후계자인 요시자네(1639~1702)의 묘가 가장 큼니다. 묘지의 아래층에는 측실과 어린 나이에 죽은 자녀 등 다른 일족의 묘가 있습니다.